접어서 주머니에 쏙!…'패커블' 아이템 인기

트렉스타, 패커블백 달린 자켓 출시
컬럼비아, 자외선 차단 바람막이 선봬
마운티아, 향균 기능 버킷햇 눈길

"편해야 산다". 일상에서 편리함을 극도로 추구하는 시대. 이른바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이 소비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내세운 '편리미엄' 제품은 수납이 쉬운 패커블 아이템이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사이즈, 여기에 디자인과 기능성을 더해 활용도를 높인 패커블 패션 아이템들이 인기다.



'편리미엄' 트렌드에 맞춰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수납이 편리한 '패커블' 아이템들을 출시했다. 트렉스타의 '752 어셈블 자켓(왼쪽)'과 K2의 '패커블 백 시리즈'. 사진제공 | 트렉스타·K2

트렉스타의 '752 어셈블 자켓'은 윈드브레이크 자켓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발수가공 처리해 소프트한 터치가 강점. 등판부분에 포인트가 되는 패커블 백이 있다. 배낭 없이도 작은 소지품 보관이 가능해 가벼운 산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땀이 날 때는 자켓을 어깨에 간편하게 걸치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트리니티 베스트'는 트레일러닝, 단거리하이킹 등 가벼운 아웃도어 엑티비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용도 수납주머니와 간편하게 채울 수 있는 피드락 자석 클로져가 특징인 다용도 베스트다. 역시 등판에 배낭으로 변형이 가능한 패커블 백을 장착했다.

K2의 '패커블 백 시리즈'는 소비자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 백팩, 더플백, 도트백, 슬링백, 크로스백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튼튼한 내구성과 넉넉한 분리 수납공간이 자랑이다. 전면 하단부에 가방을 말아 넣을 수 있는 패커블 기능이 있어 실용성을 강화했다.

컬럼비아는 컬러블럭형 바람막이 자켓 '포인트 파크 윈드브레이커'를 선보였다. 핸드포켓 안감에 패커블 기능을 내장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다. 후드를 목 안쪽에 말아 넣을 수 있도록 설계해 일교차가 큰 간절기 야외활동 시 유용하게 착용할 수 있다. '포인트 파크 윈드브레이커'는 자외선 차단 기술인 옴니쉐이드를 적용해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마운티아의 '에일 패커블햇'은 벙거지 스타일의 버킷햇. 손바닥 사이즈로 접어 보관할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나다. 발수 기능성 소재를 사용했으며 모자 안쪽에 항균 소취 기능의 데오쿨밴드를 적용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휴가지에서 쓰기 좋은 제품이다.

트렉스타 관계자는 "편리미엄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패커블 아이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편리함과 실용성, 디자인을 갖춘 패커블 아이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모델 국내 출시

뛰어난 주행성능…오픈 에어링 매력

지프가 '올 뉴 랭글러' 오버랜드 트림에 원터치 전동식 소프트탑을 탑재한 '오버랜드 파워탑'(사진) 모델을 출시했다.

지프 브랜드 최초로 원터치 전동식 소프트탑인 '스카이 원-터치 파워탑'을 장착한 모델이다. 수동으로 나사나 볼트를 풀 필요 없이 간단한 버튼 조작 하나만으로 뒷좌석 2열까지 완전 개폐가 되어 탁 트인 하늘을 즐기는 오픈 에어링이 가능하다.

전자식 주행 안정 시스템(ESC),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HD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ACC),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등 주행 안전 편의사양도 충실하게 갖췄다.



파블로 로쏘 FCA 코리아 사장은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은 도심형 랭글러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모아 놓은 최상의 트림"이라며, "뛰어난 온로드 주행성능 및 주행 안정 시스템 등 오버랜드의 장점과 파워탑이 선사하는 오픈 에어링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린다"고 말했다.

지프 올 뉴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모델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 6340만 원(부가세 포함)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셰프의 요리를 배민라이더스로…" JW메리어트 동대문 배달 서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뉴 노멀' 트렌드가 호텔 서비스의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이하 JW메리어트 동대문)는 호텔 셰프 요리 배달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JW메리어트 동대문은 올데이 다인징 '타볼로 24'의 셰프가 만든 홈다이닝 세트를 배달하는 'JW 안식 투-고'를 운영하고 있다.

'JW 안식 투-고'는 소 왕갈비 양념구이, 돼지 양념구이, 삼겹살 소금구이 등을 주 먹밥, 샐러드, 갓김치, 쌈채소, 양념장 등과 함께 완성된 한 상 차림으로 배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레스토랑 같은 다중시설을 찾기가 부담스러운 심리에 맞춘 '뉴 노멀' 서비스다.

모바일앱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 '배민라이더스'로 배달하는 것도 특징이다. JW메리어트 동대문의 반경 3.5km 이내에 거주하면 이용할 수 있다. 타볼로24 전화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도 최소 1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수령이나 퀵 서비스를 통한 수령도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킴스패밀리의원-국제자원봉사자연합회 MOU 킴스패밀리의원이 국제자원봉사자연합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시효 킴스패밀리의원 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황종문 국제자원봉사자연합회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은 치매예방캠페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김원장은 치매 치료전문가이며 뇌건강 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사진제공 | 킴스패밀리의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6일(수) 음력: 4월 1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소**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맑음, 권태롭다.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돼 인사이동, 확장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특히 연상의 이성에 끌리는 날이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훼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 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봐라. 소가 닭을 만났다. 처음은 좋으나 중도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유는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며 주위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오늘은 닭날이다. 호랑이띠는 혈기왕성하여 무언가 시작하려는 기운이 강한데 닭은 브레이크를 거는 형국이다.	신용과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동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오늘은 닭날로 재살일이다. 토끼가 닭을 만나면 서로 부딪힌다. 극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은 흉한 날이며 극적인 전환이 이뤄지는 날이다.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싸늘, 외롭다.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괘청, 상쾌.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진눈깨비, 혼란.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현재의 상태에서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위기를 극복하면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오늘은 닭날이다. 닭은 도화로서 자신의 능력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남에게 보여주려는 기운이 강한 반면, 용은 화개 즉, 자신의 재능을 덮어 튀지 않게 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뱀띠는 지살로서 움직이려는 기운이 강한데 오늘 닭날은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격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킬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오늘은 닭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또한 말은 한 낮을 의미한다. 지나친 밝음으로 타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오늘 양띠생은 머리를 써서 기발한 묘책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하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파도, 우왕좌왕.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괘청, 힘찬 하루.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비바람, 힘들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해 현 위치에서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은 닭이 닭을 만난 날이다. 자중지란을 조심하라.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하라.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오늘은 육해살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토끼띠생과 대화하라.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오늘은 재살일이다. 재살일에는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술책으로 주변의 실력자를 움직여 큰 이익을 추구하는 날이다. 또는 내가 당하기도 한다.

날씨와 생활

6일(수)

서울 0/0	12 / 27	인천 0/0	12 / 22	수원 0/0	11 / 27
춘천 0/0	11 / 27	강릉 0/0	13 / 20	청주 0/0	14 / 28
대전 0/0	13 / 29	전주 10/0	14 / 28	광주 10/0	16 / 29
대구 0/0	14 / 27	울산 0/10	13 / 23	부산 0/0	14 / 4
창원 0/0	16 / 24	제주 30/0	16 / 23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날씨 최저 최고기온°C	

해뜸 05:31 해침 19:27 달뜸 18:01 달짐 04:53

산 날씨

북한산	10/28	내장산	14/27
설악산	13/20	무등산	14/30
오대산	12/27	주왕산	11/26
속리산	11/27	지리산	14/28
계룡산	11/29	한라산	17/22

바다 날씨

인천송도	12/22	안면도 꽃지	11/26
제부도	10/25	변산반도	14/25
경포대	13/20	거문도	13/24
속초	13/20	해운대	14/22
대천	11/28	제주도	16/23

미세먼지

서울	18	좋음	대전	17	좋음
부산	15	좋음	울산	13	좋음
대구	17	좋음	경기	19	좋음
인천	16	좋음	경북	11	좋음
광주	18	좋음	제주	21	좋음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7일 (목)	서울경기 14/26	영동 11/20	충청 13/26
	호남 14/26	영남 13/19	제주 16/22
8일 (금)	서울경기 14/25	영동 11/20	충청 13/25
	호남 13/24	영남 13/20	제주 16/23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유료부수 2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대표전화 02-361-1610

발행인	이인철	편집부장	안도영
편집인	이성춘	스포츠부장	정재우
편집국장	연제호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광고국장	이승욱	경제산업부장	양형모
인쇄	동아일보사	사진부장	고종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361-1616 sol@donga.com